

# 버럭 01월호

## Contents

무술년 새해인사	2
1차 실무자역량강화 교육을 들으며...	4
[칼럼1] 장애인복지관을 돌아보다	6
[칼럼2]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장애인 분야	9
2018년 강북센터에서는...	13
이달의 정보	14
이달의 시	16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회비납부 명단	17
광고	18





##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정종남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도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되돌아보면 2017년은 2016년도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바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듯이 조직의 상처도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십갑자를 사용하여 연도마다 그 해를 지칭해서 이름을 짓고 있는데 육십갑자는 하늘의 에너지인 십간과 땅의 에너지인 십이지를 조합한 것입니다.

무술년은 십간의 다섯 번째인 무와 십이지의 열한 번째 글자 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는 땅이나 큰 산을 의미하며 색으로는 노란색 황금색을 뜻하고 술은 십이지 동물 중에서 개를 의미하여 올해를 황금 개띠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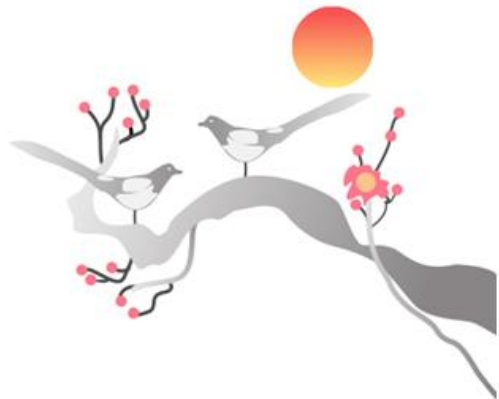


황금 개띠 해에는 상처받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북센터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모든 분  
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종남 배상

謹賀新年  
*Wish you a Happy New Year* ■



## 1차 실무자역량강화 교육을 들으며...

신보라

2018년 01월 25일(목)~26일(금) 에이퍼스트호텔 명동에서 ‘실무자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직원들은 소장님과 함께 오전업무를 마치고 출발하여 호텔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였다.



‘실무자역량강화교육’ 장소인 에이퍼스트호텔명동은 호텔 내에 별도의 회의실과 카페가 마련되어 있었다.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우리들은 입실시간까지 호텔 내에 있는 카페에서 소장님과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담소시간을 가졌다.

강의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각자의 방에서 가방을 풀고 그날의 룬메이트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강의시간을 기다렸다.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필기도구와 메모지, 마실 수 있는 물이 미리 마련되어 있었고, 깨끗하고 아담하여 집중하여 강의를 듣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본격적인 ‘실무자역량강화교육’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 운동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상호소장님(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께서 강의를 맡아주셨다.

한국장애인 운동 역사를 통해 거리집회,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요구, 장애인 교육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투쟁 등등 사진과 함께 장애인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들으니, 슬픔과 아픔 좌절이 느껴졌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국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배우며 그동안 궁금해 하고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배우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 2018년 서울시장애일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이상호 소장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며 신영복 시인의 <함께 맞는 비>를 소개해주시며 ‘장애인들과의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 하셨다.



강의가 끝난 뒤 호텔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강의에 대한 소감과 강사님께 궁금했던 것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장애일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직원들과 식사 시간에 못 다한 수다를 떨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이튿 날 아침 조식을 먹고 평가회의를 11시 30분까지 강의에 대한 이러저러한 평가 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18년도 1차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을 돌아보다.

## 장애인복지관을 돌아보다.

허효숙



###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2000년 이전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재활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과 사회교육센터로서의 역할, 복지활동의 통합조정센터의 역할, 그리고,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확산, 종합계획센터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자원동원센터로서의 역할 등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강조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재활센터로서의 일선전달체계의 변화의 따라 지역사회복지센터 중심으로 변화해야하고, 지역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은 지역사회의 제반 관련 기관, 시설 등의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의 환경에 따른 과제

과거 개별적, 의료적 모델로 특정했던 장애개념이 점차 사회적 모델, 환경 모델, 복합적 모델로 전환되어졌다. 장애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관점이 개인에서 사회로 변화되어진 것이다. 장애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던 개인적 모델에서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 된 것이다. 환경모델은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자기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며, 복합적 모델은 장애에 대한 개념을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으로 단순모델에서 복합적인 모델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의 소비자인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서비스의 구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소비자 주권이라 한다. 자립생활에서는 의료적, 직업훈련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제거 및 해결을 위해 장애인당사의 주제적인 역할을 중시한다. 자립생활서비스는 개인적 부분과 환경적 부분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변화(지역사회 생활의 지원을 중시)를 추구한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보장 및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가 요구되며, 복지관은 어떻게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적 부분과 환경적 부분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해결을 도모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 장애인당사자 입장 전달체계 부족

결국 복지관을 향한 장애계의 비난은 지금까지 이뤄져 온 복지관 운영 방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지만, 종사자들 역시 비판의 내용들을 전혀 모르거나 묵인해 온 것만은 아니다. 나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길로 접어든, 관리자급 이하의 종사자일수록 이미 고착화된 복지관 시스템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내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복지관 체계에 회의감을 느껴 결국 그만두거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종사한다는 것이 한 복지관 종사 경험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종사자 개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량이 절대적으로 적지 않다. 복지관 예산에서 70-90% 이상이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로 쓰이고, 정작 사업을 운영할 예산은 늘 부족하니, 그 비용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일반기업에서 할당받은 단기 프로젝트 사업에서 충당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사업은 물론 사업을 담당하던 인력마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게 사업에 쫓기고 있는 것이 상당수 복지관의 현주소다. 때문에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각종 사업들의 보고서 작성과 행정처리에 집중하느라 정작 장애인 당사자를 대면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나 역시 복지관에 있는 동안 최대 12개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 적이 있다. 서비스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게 소원이었고, 이것이 복지관 일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종사자들이 장애인의 목소리보다 사업과 평가결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안정한 복지관 운영 실태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복지관 현장과 거리감 있는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난 2016년 한 차례 시범평가를 진행했다. 2016년 11월 진행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결과 보고회에서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적 성과와 문서중심의 중앙평가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시범평가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복지환경을 반영해 보다 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해당 평가에서는 기존까지 중요시되지 않던 당사자의 권리와 주체성,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아직 시범 단계에 있어 종사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과, 새로운 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는 숙제로 남아 있지만, 당사자의 주도성과 복지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다.

## 복지관의 핵심은 ‘당사자’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든 복지관이 재활과 교육사업보다는 오로지 자립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각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역할 차이는 무엇일까. 앞으로의 복지관의 모습에 대해 성희선 관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국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난 데에도 결국 복지관이 해당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 모델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복지관과 자립센터 역할의 모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의 유효성은 여전히 있다. 일부 복지관에서 이미용실 서비스를 복지관 내가 아닌 지역사회로 돌린 것처럼 복지관 내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가 모두 복지관 밖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들로 단기간에 가능한 일도 아닐뿐더러, 그 모든 것이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단정내리기도 어렵다. 장애인복지관만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문가 혹은 행정가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 한다.”

자료출처.

- <http://m.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1>

- 장애인복지관 역할의 변화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_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장애인 분야 분석

전 난희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예산+기금)은 2조 2,200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11.0%, 추경 대비로는 7.4%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다. 2016년도 1.0%, 2017년도 1.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중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소득보장사업 34.5%(7,65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2%(6,71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20.8%(4,619억 원)의 총 예산은 85.5%(1조 8,989억 원)이며, 장애인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2.1%, 추경 대비 8.3% 증가하여 장애인 예산의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표 7-1〉 2018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및 장애인 예산(안) (예산+기금)

단위: 억 원, %

구분	'17예산		'18예산(안)	증감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총지출(C)	576,628	585,333	642,416	65,788	57,083	11.4	9.8		
사회복지(D)	477,464	485,796	537,838	60,374	52,042	12.6	10.7		
장애인 복지	금액(E)	20,007	20,670	22,200	2,193	1,530	11.0	7.4	
	구성비 (%)	E/C	3.47	3.53	3.46	-	-	-	-
		E/D	4.19	4.25	4.13	-	-	-	-

※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실명자료

##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중 장애인연금은 2018년도에 6,356억 원으로 편성되어 2017년 장애인연금 예산 대비 13.5%(추경대비) 증가하였으나 장애수당은 1,298억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2.2% 감소하였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75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0% 감소하였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54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감액 편성된 것은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이 9,529명(4.0%)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따른 것이며 지원단가는 월 4만 원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이다(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의 지원 단가도 4만 원으로 2017년과 동일).

2018년 서울시장애일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한편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이 35만 2,000명에서 35만 5,000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급여액은 기초급여에 대해 20만 5,430원에서 25만 원으로 큰 폭(21.7%)으로 증가(부가급여는 지난해와 동일)시킴으로써 관련예산이 5,600억 원에서 6,356억 원(13.5%)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소득보장에서 그간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서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

〈표 7-2〉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안)

단위: 백만 원, %

	'17예산		'18예산		증감	
	본예산	수정(A)	요구	조정(B)	(B-A)	%
<b>총계</b>	2,000,739	2,067,026	2,281,471	2,220,048	153,022	7.4
<b>【일반회계】</b>	1,997,123	2,063,410	2,273,804	2,215,794	153,384	7.4
장애수당(기초)	78,102	78,102	78,102	74,985	△3,117	△4.0
장애수당(차상위 등)	54,609	54,609	54,609	54,779	170	0.3
장애인연금	559,967	559,967	635,572	635,572	75,605	13.5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31,095	31,095	33,586	26,902	△4,193	△13.5
장애인활동지원	546,137	606,123	686,907	671,676	65,553	10.8
장애아동가족지원	73,870	79,280	87,133	87,133	7,853	9.9
여성장애인지원	2,818	2,818	3,261	2,842	24	0.9
발달장애인지원	9,081	9,081	9,794	8,472	△609	△6.7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55,098	455,098	479,920	461,932	6,834	1.5
장애인자립자금융자	390	390	308	208	△182	△46.7
장애인단체지원	7,111	7,111	7,211	7,111	-	-
장애인일자리지원	81,365	82,256	95,745	95,745	13,489	16.4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및인식개선	2,071	2,071	3,249	3,027	956	46.2
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사업	-	-	450	450	450	순증
중증장애인우수선구매촉진	1,452	1,452	1,752	1,555	103	7.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709	18,709	18,934	18,709	-	-
장애인의료비지원	27,575	27,576	23,372	23,072	△4,503	△16.3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	10,959	942	942	순증
장애인실태조사	1,039	1,039	-	-	△1,039	순감
장애인보호조기구지원	3,290	3,290	3,331	3,242	△48	△1.5
장애인지원관리	1,374	1,374	1,541	1,379	5	0.4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9,367	29,367	23,721	23,721	△5,646	△19.2
중증장애인일자립생활지원	5,279	5,279	5,831	5,387	108	2.0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571	571	620	590	19	3.3
장애인정책책임기본경비(총액)	97	97	100	89	△11	△11.0
장애인정책책임기본경비(비총액)	106	106	109	97	△11	△10.2
<b>【국민건강증진기금】</b>	3,616	3,616		3,254	△362	△10.0
재활병원 건립	3,000	3,000	7,000	2,638	△362	△12.1
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616	616	667	616	-	-

※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제도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는 제도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및 차상위의 경증과 중증 대상)은 추가비용보전성격의 급여이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비용보전성격의 부가급여가 혼재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통합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의 제도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연금은 가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전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지출보전급여는 보편적 수당으로, 소득보전급여인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상실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거시설운영지원

2018년도 복지부 장애인예산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6,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본예산 대비 23.0%)로 증가하여 장애인예산의 평균증가율 7.4%보다 높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6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단가도 기존의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16.4% 증액(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동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해왔던 사항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애인주거시설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4,6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장애인예산 평균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하였다. 거주자 1인당 지원단가가 연간 2만 6,905천 원에서 2만 8,390천 원으로 5.5% 증액되었으나 지원인원은 2만 5,136명에서 2만 4,180명으로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22~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6~27%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의 도모를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관련 예산의 증가와 제도개혁, 정책방향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2018년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은 269억 원으로 전년도 311억 원 대비 42억 원, 13.5%가 감액되었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장애관정체계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심사제도 운영 등 나머지 하위사업들은 소폭이지만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하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사제도 운영비가 252억 원으로 전년도 247억 원 대비 2.0%의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심사제도 운영비의 증가가 소폭이라고는 하나 이것이 그동안 장애등급심사를 통한 수급권리 제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제도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2019년도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 예산이 3억 1,000만 원 신설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어 장애등급심사제도의 개혁에도 공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일자리지원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957억 원으로 전년도 814억 원 대비 16.1% 증액되었다. 시각장애인안마

##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사파견사업의 지원단가가 1.2%의 소폭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하위사업들(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자 보조일자리)의 지원단가가 16.3%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의 증가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의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의 지원단가가 증액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나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발달장애인지원

2018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8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90억 8,000만 원 대비 6.7% 감액되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이래 매년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감액되는 등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위사업별로 보면 공공후견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예산이 각각 3억 원과 4억 원 감액되었고, 발달장애인개별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7년 대비 7.4%(추경기준, 본예산 대비로는 11.0%) 증가하여 지난 정권의 1%대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총예산 증가율 9.8%(2017년 추경기준)보다는 낮아 장애인복지예산의 구성비는 2017년 추경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2018년도 장애인 예산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복지부 장애인예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인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각각 10.5%, 10.8% 증가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1.5%로 소폭 증가하였다. 단년도 예산안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을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제도개혁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소득보장의 경우, 추가비용보전성격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통합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보전급여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밝히고 있듯이 장애등급심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져 개도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관련 법을 시행 후,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부분은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이 지원단가의 인상을 동반한 것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이것이 그간 사실상 하락해온 지원단가를 단순히 현실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thisedu/221181219667>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장애인의 분야] 작성자  
행복충전소]

## 2018년 강북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동료상담

집단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 심화, 보수)

개별동료상담과 집단동료상담, 그리고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성장을 독려하며, 사회활동을 지지하고자 한다.

대상: 서울지역 장애인  
기간: 2월 ~ 11월

자립생활기술실천

자립생활기술교육

단기체험홈

체험 김치담그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여가를 체험함과 동시에 자립생활기술을 몸으로 익힐 수 있다.

대상: 서울지역 장애인  
기간: 1월 ~ 12월

인권강좌  
12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강북구 자치법 계정

장애인권 영상물 제작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학교와 자치법 계정, 그리고 장애인 영상물 제작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차별을 해소한다.

대상: 서울지역 장애인  
기간: 1월 ~ 12월

맞춤형 주택개조

클리닝[세탁]

지적/발달장애인  
단기인턴십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원활한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와 클리닝[세탁] 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기인턴십과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개설하였다.

대상: 강북구 지역 장애인  
기간: 2월 ~ 11월

## 이달의 정보

###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대 5개소 늘려 총 10개소 운영…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확충

서울시가 올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각 10개소, 13개소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4일 소개했다. 먼저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오는 3월 10개소로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노원, 은평, 동작, 마포, 성동 등 총 5개소로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 등 총 5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전문상담, 정보교육, 사례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총 13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강서, 은평, 마포, 동대문, 광진 등 총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는 2월 자치구 공모를 거쳐 연내 13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편의도 향상한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지난해 2000여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나비콜, 엔콜)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한다. 또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전화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전용 앱 개발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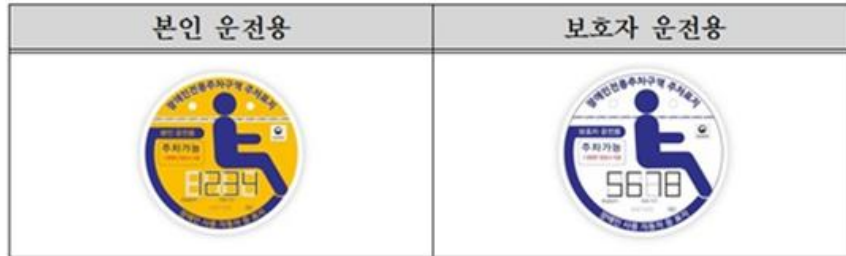
이외에도 생활이동센터 운전원·상담원 성과 포상제 및 운영개선, 이용자 규칙과 종사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그 외에도 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40개 동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3000원 이하), 금융재산 3000만 원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736만6000원으로 완화한다.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80104132944247235#z>

## 여행 렌터카·리스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편의증진법 시행령 의결...무대 경사로 설치 의무화



오는 4월말부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거나, 수리를 위해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한 대여·임차하는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정비해 리스하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경우에도 지역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 가능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개선했다.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했으며,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80123090352051261#z>

# 눈 위에 쓰는 겨울 시

류시화

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사람 가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자취 없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다지만

나는 십이월의 눈 위에  
시를 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b>◆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b>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b>◆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b>			
<b>신청정보</b>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b>금융거래정보</b>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b>개인정보</b>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의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등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    동의하지 않을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앤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 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    동의하지 않을 [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효성에프앤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등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8년 이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소연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문지수	박동열	박민숙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이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민자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상반기 집단동료상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반기 집단동료상담은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위주의 사회에서 살아오며 받아온 차별과 억압을 공유하여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주체성을 되찾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네트워크를 통한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여 원활한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강북센터에서는 '상반기 집단동료상담'을 실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 업 명	상반기 집단동료상담 '내 마음을 들어줘'
일 시	2018년 02월 20일 (화)
장 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1707호
모 집 대 상	서울 전지역 전장애 영역
모 집 인 원	총 10명 (장애인 5명, 보조인 5명)
신 청 기 간	01월 23일(화) ~ 02월 06일(화) 오후 5시
접 수 방 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kbcil.co.kr">http://kbcil.co.kr</a>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또는 사무실(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 타 문 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08-7776 ✉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 위 일정은 센터 상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